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기구

약칭으로 OPEC이라고도 한다. 1960년 9월 원유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의 초청으로 개최된 바그다드회의에서 이라크·이란·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베네수엘라의 5대 석유 생산수출국 대표가 모여 결성한 협의체이다. 1950~1960년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대유전이 발견되어 원유의 공급과잉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국제석유자본이 원유 공시가격을 인하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산유국들이 이 기구를 결성하고 공시가격의 회복, 인상을 주도했다.

결성 당시에는 원유공시가격의 하락을 저지하고 산유국 간의 정책협조와 이를 위한 정보 수집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카르텔 성격의 기구였으나, 1973년 제1차 석유위기를 주도하여 석유가격 상승에 성공한 후부터는 원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는 생산카르텔로 변질되었다.

2005년 현재 회원국은 아프리카의 알제리, 나이지리아, 리비아,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중동의 이란·이라크·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다.



IAE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nergy Economics) 국제에너지경제학회

1970년대 후반 미국의 짐 플럼버(Jim Plummer)는 에너지경제학자들이 생각과 방법, 데이터 등의 전문지식을 방해없이 교류하기 위해 에너지경제학자들의 모임을 발의했다. 처음 플럼버는 미국경제협회에 자신의 생각을 전했고 1977년 1월 뉴욕에서 처음 모임을 가졌다. 이렇게 탄생된 IAEE는 1970년대의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1977년 창설된 미국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비이익집단이다. IAEE는 70여개국에 에너지경제와 관련된 자료, 생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회원을 두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과 사건, 그리고 에너지산업자체를 연구하고 있다.

IAEE의 주목적은 에너지경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직업적이며 다국가적인 토론과 포럼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IAEE는 분기별로 "The Energy Journal"와 IAEE의 뉴스레터를 통해 최근에 에너지분야에서 대중들이 관심가질 만한 내용을 수집, 배포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매년 세 번의 컨퍼런스를 개최, 전세계의 정부와 기업집단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